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기술수요조사 공고

- 민·관 합동 100억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신규 프로젝트 발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6일(일), 2026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신규 출제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11월 17일(월)부터 12월 29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대규모 프로젝트형 기술개발(R&D) 사업으로, 벤처캐피탈(VC) 등의 민간투자금을 포함하여 프로젝트당 1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2026년 정부 예산안 : (정부) 출연기술개발(R&D) 최대 50억원, 매칭투자 20억원 이상
(민간) 선·후 투자금 30억원 이상

일반적인 정부주도형 지정과제와 달리, 정부가 국가전략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과제를 출제하면 기업, 투자사, 연구기관 등이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민간투자금 20억원 이상을 유치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기업, 투자사, 연구기관, 대·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12월 29일(월) 18시까지 접수·등록할 수 있다.

접수된 기술수요는 국가전략적 투자 필요성, 도전·혁신성, 파급력 등에 따라 엄선되어, 2026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에 출제될 연구개발 제안서(RFP)로 기획된다.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는 2026년 정부예산안에 정부출연 규모가 기존 36억원에서 최대 50억원으로 확대편성되어 국회의 심의를 받고 있으며, 증가한 지원규모에 맞춰 출제할 과제의 수준도 높아질 전망이다.

중기부는 이번 수요조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핵심분야의 기술 시장 분석(「중소기업 전략투자 로드맵」)을 바탕으로 발굴한 주요 기술과제, 딥테크 팀스(R&D) 연계 과제 등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출제 경로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박종학 기술혁신정책과장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우수한 기술혁신역량은 세계적 기술난제 해결의 실마리”라면서,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이 난제에 도전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술혁신정책관 기술혁신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종학 (044-204-7740)
		담당자	사무관	이재준 (044-204-7742)
			주무관	손채은 (044-204-7747)

* Deep-tech Challenge Project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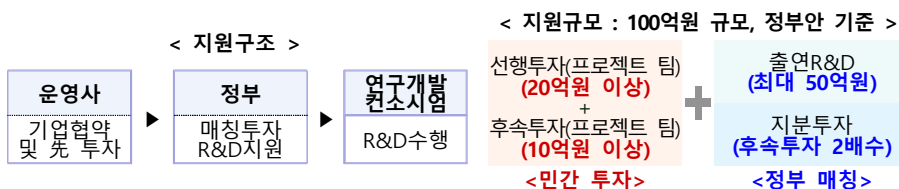
- 유망한 중소벤처가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자와 연계하여 도전적·혁신적 R&D 과제 지원

□ 지원대상

- 프로젝트 팀(중소벤처기업 중심, 투자사 및 R&D 협력기관 컨소시엄)

□ 추진절차

- ① **(프로젝트 발굴)** 12대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핵심분야 기술도전과제(RFP)를 발굴, 기획·고도화하여 파급력 있는 프로젝트 출제
- ② **(프로젝트팀 선정)** 기업 등이 프로젝트팀을 구성, 도전자금(20억원 이상 투자금) 유치 후 출제된 RFP에 대해 신청
- ③ **(대규모 지원, 연구 자율성 보장)** 연구 수행 자율성 보장, 민·관 합동 100억원 투자 지원 및 PM 전주기 관리



- ④ **(인센티브, 실패부담 경감)** 민간의 보수적 투자 방지를 위해 우선 손실 충당 등 인센티브 확대,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실패 부담 경감